

6월 21일(금) 10:30
DGB FIUM LAB 개소식

「DGB FIUM LAB 개소식」

- 祝 辭 -

2019. 6. 21.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I.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DGB 피음랩(FIUM LAB)의 개소를 축하합니다.

피음랩 개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님과

DGB금융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부겸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부겸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핀테크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결과,

'18.7월, 금융혁신기획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1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을 통한 결제 인프라 혁신 등

다양한 핀테크 지원 정책을 발표·시행해왔고,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주도하여 주셨고,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큰 업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DGB 피음랩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먼 곳까지 와주신 분들과
DGB 피음랩 1기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 대표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 말씀 드립니다.

II. DGB금융그룹의 금융혁신 노력

최근 DGB금융그룹은
지방 금융그룹들 가운데서도 선도적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한 영업망 확대를 위해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본부를 설립('19.2월)하고
레이니스트, 핀크 등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DGB대구은행-레이니스트: بانک샐러드를 통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9.3월)
DGB대구은행-핀크-SK텔레콤: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9.5월)

또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DGB 금융은 앞으로 3년간 혁신 기업에
4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음랩 입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진행되는
DGB금융과 한국성장금융 간 MOU는
금융권의 핀테크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개소하는 DGB 피움랩은
DGB금융의 디지털 혁신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DGB 피움랩은 최초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핀테크 랩*입니다.

* '19.6.21일 기준, 총 8개의 금융권 핀테크 랩이 존재하며,
DGB FIUM LAB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에 위치

평소 핀테크 생태계 구축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는데,

DGB 피움랩을 통해 지역 기반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시작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피움랩 1기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도
DGB금융그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구·경북지역 혁신생태계의
단단한 고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III.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과 함께
정부 또한 핀테크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 네트워킹 기회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Young)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핀테크 도입 지수(Fintech Adoption Index)는 '17년 32%에서 '19년 67%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는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7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핀테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핀테크 기업 그리고 금융회사가 한 마음이 되어 핀테크 산업에 양질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우리 금융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움랩을 통해 DGB금융그룹과 피움랩 1기 핀테크 기업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